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5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u>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u>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말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u>성소를 위한 기도</u>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공 동 체 소 식

베이커스필드 한인회 송년모임: 12/27 (주일) 저녁 6시

장소: Seven Oaks Country Club, Bakersfield, CA

1월 성체조배: 1/7 (목) 저녁 6시 30분.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을 위한 기도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형제 자매님, 그리고 이웃을 위해 그분들이 주님품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대림 일일 피정

지난 주일 있었던 대림 피정일정을 위해, 준비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주소: <http://info.catholic.or.kr/>

한국 가톨릭 정보 인터넷 정보에서 다양한 정보(매일미사, 성경, 기도서, 교리 등)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2/27	유 요한	김 헬레나	성인복사
1/3	이 마틸다	이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10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17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2/20	\$ 220.00	\$ 90.00	\$400.00

*성탄 및 대축일 미사 일정

구유경배: 12월 24일 (목) 6시

성탄전야미사: 12월 24일 (목) 오후 6시 30분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성탄미사: 12월 25일 (금) 오전 9:30 (한국어, 영어)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1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말씀의 이삭

나를 일으켜 세운 한마디

박민서 신부 |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담당사제

저는 사제품을 받은 후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사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엔 아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성당이 없기 때문에 특수사목을 하는 공동사제관에서 십여 명의 사제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든 제게 공동생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사제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쉽게 친분을 맺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단절을 당한 사람’이라고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말을 몸으로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니 소외감이 깊어지고, 저는 궁금한 일이 생겨도 사제들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사 소통의 어려움은 저를 사제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저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교구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굴 속에서 헤매고 있을 즈음, 교구 사제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수 때 수화를 할 줄 아는 한 신부님이 통역을 잘 해주어서 모든 사제와 대 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를 처음 만난 한 선배 신부님 이 “박 신부! 사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해. 박 신부가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혼자 있 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박 신부는 우리 교구 사제니까 함께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해. 응원해줄 테니, 힘내!”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동굴에 빛이 들어오는 듯했고, 동굴에서 나와 그분들과 함 께 목자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연수 동 안 사제들은 비록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따뜻하게 대 해 주고 저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사제들이 축구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선배 신부님 이 같이하자며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신발이 조금 불편했지만 저를 불러준 것이 고마워서 축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한다는 기쁨에 발이 아파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축구를 잘하지는 못 해도 열심히 뛰는 모습에 기뻐했고, 저는 신부님들과 시 합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축구를 함께 했던 선배 신부님이 제게 축구화를 선물로 주셨습 니다. 그 선물에 담긴 선배 신부님의 관심과 사랑에 너무 감사했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제들의 공동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 습니다.

“박 신부! 우리 교구 사제니까 함께 해. 어려운 일 있 으면 말해. 응원해줄 테니, 힘내!” 선배 신부님의 이 말씀 은 소외감 속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하느님은 물론이고, 저를 걱정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서울주보에서>

